

06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정 다 운
완주군청

- I. 머리말
- II.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현황과 분포
- III.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 IV. 맺음말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정 다 운 (완주군 문화관광과)

I. 머리말

만경강은 완주군(동상면 밤샘)에서 발원하여 전라북도 북부 일대를 가로질러 흐르며, 호남평야 형성에 근간이 되는 강이다. 만경강의 가장 큰 특징은 감조하천구간이 길며 전형적인 자유곡류하천이라는 점이다(전북의 하천과 주변문화 2016: 544).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만경강유역은 바닷물의 영향 범위에 따라 논농사가 유리했던 곳이 한정적이었으며, 고대 사람들의 생업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 된다¹⁾.

만경강이 낮은 지대를 따라 자유롭고 끊임없이 흘러왔듯, 이 일대의 청동기시대 사람들 역시 환경에 적응하며 연속적으로 살았을 것이다.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는 최근 전주 동산동유적과 같은 대형 주거군이 확인되는 등 자료가 상당부분 축적되었으며, 그에 따라 만경강유역에 한정하여 청동기시대의 특징을 살피는 연구 성과 또한 다수 발표되었다(김규정 2020; 김승옥 2016·2017; 천선행 2016·2019). 따라서 이러한 연구 성과들 이후의 새로운 유적의 보고가 미미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론 또는 획기적인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유적의 집적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 성과에 부가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수준에서 접근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간의 편년 연구를 다시 검토하기 보다는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현황과 분포를 살피고, 세부적으로 시기별 주거의 구성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 청동기시대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본 발표에서는 조기의 미사리유형(기원전 15-13세기)과 전기의 가락동 · 역삼동 · 혼암리유형(기원전 13-10세기), 중기의 송국리 · 천전리 · 검단리유형(기원전 9-6세기), 후기의 수석리유형(기원전 5-4세기)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다만, 전북지역 내 조기의 미사리유형 주거는 순창 원촌유적에서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기의 토기전통이 확인되는 경우, 조·전기로 통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주로

1) 만경강 하구에서 삼례교까지와 그 사이의 지류 주변의 낮은 곳은 제수문(制水門)을 설치하지 않는 한 바닷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강의 본류인 삼례 하류부는 비옥한 충적평야임에도 불구하고, 저온지(低溫地)가 넓고 하천수에 염분이 함유되어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으며 홍수피해도 거듭돼 왔다. 따라서 제방축조·방조수문 설치 등 대규모 치수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20년대까지는 삼례지역 상류인 고산천과 소양천, 전주천, 삼천 주변의 평야지대가 논농사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전북의 하천과 주변문화 2016: 545-546).

토기전통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동일한 유적 내에서도 혼재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청동기시대 후기는 초기철기시대와 자료의 중복을 고려하여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를 대상으로 삼았다. 원형점토대토기는 기원전 2세기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대상 주거유적은 초기철기시대와 중복되지만, 그럼에도 원형점토대토기는 청동기시대 후기와의 연속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대표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Ⅱ.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현황과 분포

만경강유역에는 전북지역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주거군들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圖 1·2·3). 청동기시대 유적 수와 주거의 수는 조·전기 총 27곳 77기(表 2), 중기 77곳 510기(表 3), 후기 11곳 35기(表 4)가 확인되었다.

만경강유역의 지역별 유적과 주거의 수는 <表 1>과 같다. 조·전기 유적은 중기와 후기에 비해 유적의 수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전북지역의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의 수가 총 31곳인 것을 고려하면 만경강유역에 밀집양상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전기의 주거 유적은 동산동(18기)과 구암리(10기)를 제외하면 모두 10기 미만의 소규모 유적이다(圖 1). 즉,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자료를 통해 조·전기는 소규모 집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表 1. 만경강유역 지역별 청동기시대 유적 수와 주거 수(천선행 2020:56 재편집)

시기 \ 시군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합계
청동기 조·전기	·	6(15)	8(17)	1(10)	13(35)	27(77)
청동기 중기	9(18)	10(50)	29(129)	6(36)	23(277)	77(510)
청동기 후기	·	2(8)	2(2)	3(7)	4(18)	1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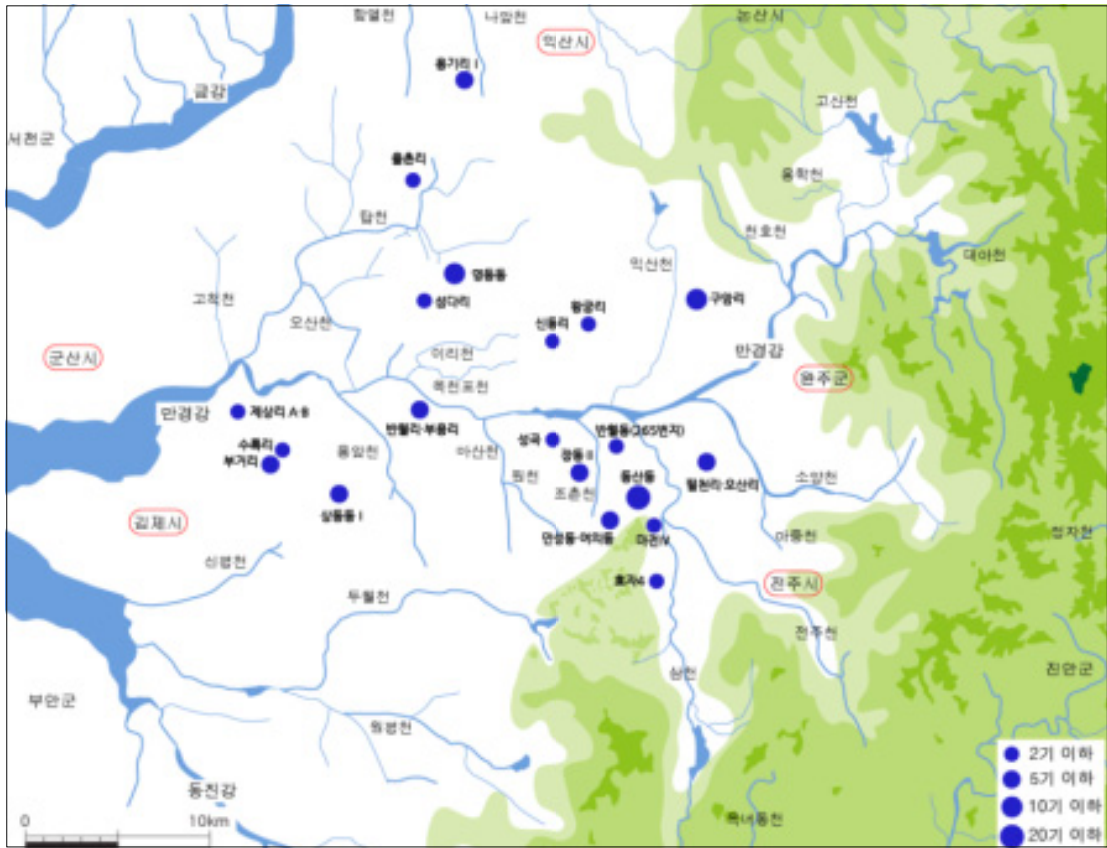


圖 1.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 분포

表 2.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현황

연번	지역	유적	주거 수	입지 (해발고도)	평면 형태②	면적 (수)	내부시설		문화 유형	주요 출토유물
							노지	주혈		
1	익산	용기리 I	4기	구릉정상- 사면 (25-29m)	(장)방형	소형(1) 중형(3)	토광 무시설	비정형	혼암리	구순각목+공열+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 어망추, 석촉, 함인석부, 지석 등
2		울촌리 분구묘	1기	구릉사면 (25m)	.		.	.	.	무문토기편, 유경식석촉
3		섬다리	2기	구릉정상 (12.5m)	(장)방형	소형(1) 중형(1)	무시설 토광	비정형	미사리	각목돌대문토기, 무문토기편 등
4		영동동 I 지구	6기	평지 구릉사면부 (20m)	(장)방형	소형(1) 중형(3)		비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 유경식석촉, 어망추, 망추차 등
5		영동동 II 지구	1기	구릉정상부 (17m)	세장방	초대형	위석식	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문, 석검편, 석도편, 토제어망추, 망추차 등
6		영동동 III 지구	1기	구릉정상부 (20m)	세장방	소형	.	비정형	가락동	무문토기편

연번	지역	유적	주거 수	입지 (해발고도)	평면 형태 ²⁾	면적 (수)	내부시설		문화 유형	주요 출토유물
							노지	주혈		
7		신동리 1지구	1기	구릉사면 (25m)	.	.	.	.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문, 토제어망추 등
8		무형리 고산Ⅱ	1기	구릉사면 (18.2m)	장방	소형	무시설	.	.	무문토기, 반월형석도, 석검 등
9	완주	구암리	10기	산지구릉 사면부 (75m)	(장)방형	중형(1) 소형(6)	무시설	비정형	혼암리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공열+구순각목문, 석촉, 반월형 석도, 방추차, 어망추 등
10	전주	장동Ⅱ	4기	평지구릉 (23-4m)	(장)방형	중형(3)	토광	.	혼암리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열+이중구연+단사선, 흑색마연토기, 어망추 등
11		마전Ⅳ	1기	구릉정상 (37m)	장방	중형	.	.	.	구순각목문, 토제어망추, 망치돌, 지석 등
12		동산동	18기	층적대지	(장)방형	초대형(1) 중형(2) 대형(4) 소형(11)	(석상) 위석 무시설 토광	정형 비정형	미사리	돌대문토기, 절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적색마연토기호 (무)각목돌대문, 심발형토기 토제어망추, 유구석부
13		오산리 붓내A	1기	구릉정상부 (37.3m)	장방	.	무시설	.	.	무문토기편
14		오산리 붓내C-1 (외부)	1기	구릉정상부 (32.3m)	방형	소형	무시설	.	.	.
15		오산리 붓내C-1 (내)	2기	구릉정상부 (32.3)	(장)방	중형(1) 소형(1)	무시설	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 석기 등
16		효자4	1기	구릉정상부 (48m)	장방	중형	무시설	.	혼암리	이중구연+단사선, 발화석 등
17		성곡	2기	구릉정상부 (30m)	(장)방형	중형	토광	비정형	가락동	호형 및 옹형토기, 이중구연+단사선, 어망추, 석촉, 석도, 석촉, 석제방추차 등
18		여의동 1-1	1기	구릉정상부 (33.3m)	방형	소형	위석 무시설	비정형		호형토기, 석도 등
19		원만정A	1기	구릉사면 (40.1m)	.	.	.	.		직립구연호 등
20		원만정 1-1	1기	구릉정상부 (38.6m)	방형	중형	토광	비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21		반월동 (265번지)	2기	구릉정상-사 면 (23.7-20.5m)	방형	중형	토광	정형 비정형	혼암리	무문토기편, 석촉 등
22	김제	상동동Ⅰ	3기	구릉정상-사 면 (16-19m)	방형 장방	중형(1) 대형(2)	토광	비정형 정형	가락동	적색마연토기,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단사선, 방추차, 석검, 어망추, 석도, 석촉 등
23		제상리A	1기	구릉정상부 (17m)	방형	대형	토광	정형 (초석)	가락동	무문토기편, 석부, 망치 등
24		제상리B	1기	구릉정상부 (17.2m)	세장방	중형	.	정형 (초석)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 방추차, 석촉 등

연번	지역	유적	주거 수	입지 (해발고도)	평면 형태 ²⁾	면적 (수)	내부시설		문화 유형	주요 출토유물
							노지	주혈		
25		부거리 I-1	3기	구릉사면부 (20.1-20.6m)	(장)방형	소형(1) 중형(2)	무시설 토광	비정형 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 방추차, 석도, 지석 등
		부거리 I-2	2기	구릉정상부 (15m)	(장)방형	소형(1) 중형(1)	무시설	비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 무문토기편 등
26		수록리 C지구	1기	구릉정상부 (22m)	장방	초대형	·	비정형	가락동	이중구연+거치문, 방추차, 석촉, 토제어망추 등
27		반월리·부용리 (4구역)	4기	구릉정상-사면 (17.1-20.4m)	(장)방형	소형(1) 중형(2)	·	비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파수부, 갈판, 어망추 등

만경강유역에 자리 잡은 청동기시대 취락은 지류 사이사이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경강으로 합류되는 작은 지류들은 청동기시대 마을 사람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며, 그와 동시에 마을 간 경계의 역할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 주거는 입지 선정에 따라 크게 충적지와 구릉지로 대별된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조·전기 주거는 충적지와 구릉 정상 및 사면부에 입지한다(表 2). 그 중 유일하게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는 조·전기의 거점취락인 동산동유적은 황방산에서 흘러내리는 구릉 최말단부와 북쪽의 만경강 사이에 위치한 해발 13~14m 내외의 평탄한 충적지에 위치한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5:33). 따라서 내륙의 수계를 따라 하천 충적지에 분포하는 조기의 돌대문토기문화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김재윤 2004:35-6). 반면, 동산동을 제외한 유적의 입지는 대부분 저지성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중 구암리유적은 해발 75m의 산지구릉에 입지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농경에 유리한 입지를 보이나, 취락이 소규모인 점과 주거의 분포 양상이 주로 단독 혹은 몇 기씩 소군집을 이루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규모 개간을 통한 농경보다는 소규모 경작지를 이용한 농경생활과 함께 수렵·채집·어로도 병행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박서현 2015:96). 만경강유역의 조·전기 주거는 지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주변보다 높은 미고지 또는 구릉지가 주거구역으로 선택되었으며, 주거 대부분이 구릉정상이나 능선을 따라 설치된다는 점에서 금강유역 가락동유형과 유사하다(천선행 2016:85).

중기 주거는 조·전기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유적의 수뿐만 아니라 각 유적에 해당하는 주거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圖2, 表2). 총 77곳에서 510기가 확인되었고 형태 파악이 가능한 주거 수는 462기이다. 중기 주거의 입지는 충적지와 구릉 사면 및 정상부로 구분된다. 충적지에 입지하는 동산동유적을 제외하면, 모두 저지성 구릉의 능선과 사면에 입지한다(김승옥 2017:42). 또한 조·전기 주거와 마찬가지로 만경강 분류보다는 지류에 집중되며, 특히 전주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군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2) 형태 및 면적 분류기준(정다운 2015:28-29)

-형태: 방형(1.5미만) / 장방형(1.5~2.5미만) / 세장방형(2.5이상)

-면적: 소형(25㎡미만) / 중형(25-70㎡미만) / 대형(70-100㎡) / 초대형(10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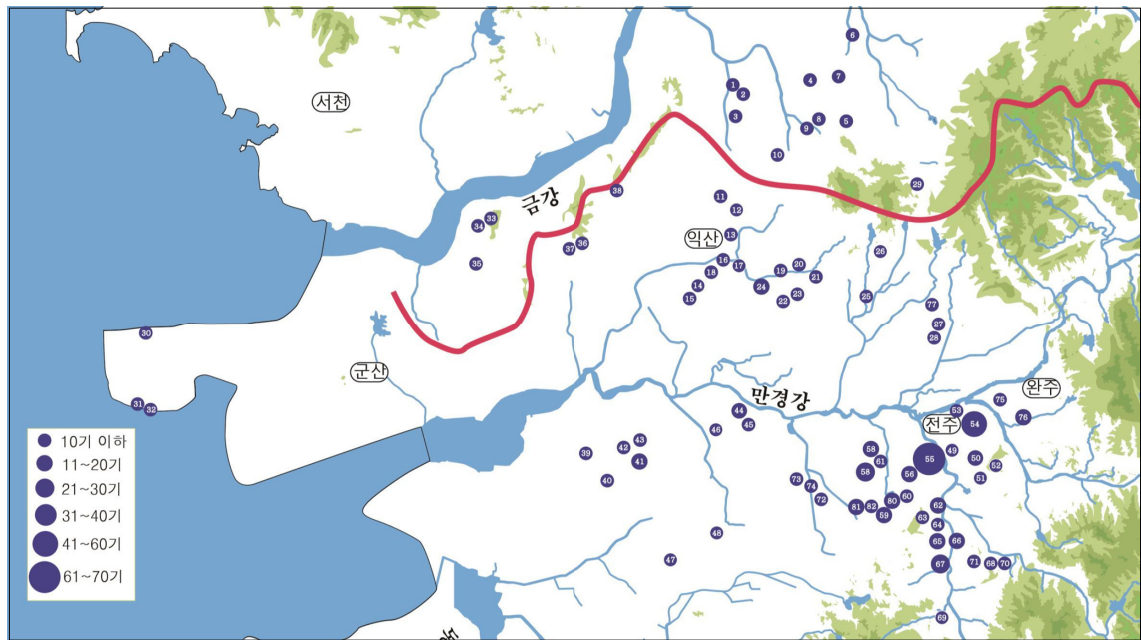


圖 2.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 분포

表 3.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 유적 목록

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해발고도)	주거 수	주거 형태 ³⁾	
1	익산	금성리	능선상단(36m)	1	A1(방형1)	
2		와리 금성 가구역	구릉사면(21-23m)	2	A1(방형2)	
3		와리 정동	구릉정상-사면(18-27m)	8(7)	A1(원형3·방형2), C1(원형1), A2(원형1)	
4		어랑리 가지구	구릉정상-능선(24-26m)	5(4)	A1(원형2), B1(원형2)	
5		어랑리 마산	구릉사면(28-42m)	8(5)	C1(원형3), D1(방형1), 기타(1)	
6		무형리 고산2	구릉정상(17-18m)	3	A1(원형2),	
7		무형리·어랑리	어랑리 중발(가)	구릉능선(16-18m)	4	A1(원형3), A2(방형1)
			어랑리 중발(나)	구릉정상-사면(15-19m)	10(6)	A1(원형4·방형1), 기타(1)
8		삼담리 상북지	구릉정상-능선(23-27m)	5	A1(원형3), D2(원형2)	
9		호암리 다구역	구릉사면(25-28m)	1	C1(방형1)	
10		용기리 I	구릉정상-능선(28-30m)	3	A1(방형3)	
		용기리 II	구릉정상(30m)	2	A1(방형1), C1(원형1)	
11		율촌리 분구묘 1호	구릉정상-사면(25m)	3	A1(원형1), C1(방형1)	
12		율촌리	구릉사면(11-12m)	2	C1(방형2)	
13	보삼리	구릉정상-능선(28m)	1	A1(원형1)		
14	장신리 I 구역	구릉정상-능선(15-18m)	4	A(원형3), A2(원형1)		

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해발고도)	주거 수	주거 형태 ³⁾
15		송학리			2	A1(원형1), C1(원형1)
16		모현동	창고부지	구릉말단	1	A2(원형1)
17		모현동	교회부지	구릉능선(11-14m)	7	A1(원형1·방형3), C1(원형1), 기타(2)
18		모현동2가 II	목동	구릉정상-사면(12.6m)	1	A1(원형1)
			학동	구릉사면(15m내 외)	2	A1(방형1), C1(방형1)
19		부평	I 구역	구릉정상(25m)	5(4)	A1(원형2), C1(원형1), 기타(1)
			II 구역	구릉정상(24.5m)	3	A1(원형3)
20		부송동 석치고개		구릉정상-사면(22-26.8m)	9(8)	A1(원형1·방형1), C1(원형2), E1(방형2), D2(원형1), 기타(1)
21		팔봉동		구릉사면(42-43m)	1(0)	
22		부송동		구릉사면	3(2)	C1(원형1), C2(원형1)
23		부송동 242-73		구릉사면(31-33m)	5	A1(원형3·방형1), 기타(1)
24		영등동	I 지구	구릉능선(18-20m)	6(5)	A1(원형2·방형1), C1(원형2), 기타(1)
			II 지구	구릉능선(16-18m)	3	A1(원형2), 기타(1)
			III지구	구릉능선(19-20m)	7	A1(원형1·방형4), C1(원형2)
25		덕기동		구릉사면(32-33m)	2	A1(원형1), C1(원형1)
26		신용리 갯점		구릉정상(55m)	1	A1(원형1)
27		광암리·동촌리		광암리	2	A1(원형1), C1(방형1)
28		홍암리			1	C1(원형1)
29		원수리		구릉사면(67-71m)	6(5)	A1(원형4), D1(원형1)
30	군산	노래섬	나지구	구릉사면 (15.5~20.5m)	1	.
31		띠섬패총	I 지구B	구릉정상(5-9m)	1	기타(1)
32			II 지구A	구릉정상(7-10m)	1	.
33		여방리		구릉사면	1	D1(방형1)
34		도암리		능 선사면(48m)	1	B1(원형1)
35		고봉리	II	구릉능선(27-28m)	4(3)	A1(원형2), C1(방형1)
			D	구릉능선(35m)	1	A1(방형1)
36		축산리		구릉사면(24-27m)	2	A1(원형1), D1(원형1)
37		축산리 계남	2구역	구릉정상-사면 (21-26m)	2	A1(방형2)
38		관원리	I	구릉사면 구릉정상(29m내 외)	2	A1(원형1), A2(원형1)
			II-가	구릉능선(32-33m)	1	A1(원형1)
			II-나	구릉사면(21m)	1	C1(방형1)
39	김제	장산리(長山里)		구릉사면(20m)	1	A1(원형1)
양청리		구릉정상(10-15m)	3(1)	기타(1)		

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해발고도)	주거 수	주거 형태 ³⁾
41		부거리·하정리	부거리 I -2	구릉정상(15-18m)	4	A1(원형3, 방형1),
			부거리 II	구릉능선(22-26m)	9	A1(원형8), 기타(1)
42		내죽리		구릉사면-말단(20-23m)	4	A1(원형3), A2(원형1)
43		수록리	C지구	구릉정상-사면(22-23m)	9	A1(원형3·방형4), C1(방형1), E1(방형1)
44		반월리 · 부용리	4구역	구릉정상-사면(19-20m)	11	A1(원형7·방형1), C1(방형1), D1(원형1), 기타(1)
45		석담리	B구역	구릉정상부	2(0)	·
			D구역	구릉정상~사면	3	A2(원형1), 기타(2)
46		월봉리		구릉정상부	1	기타(1)
47	검산동		구릉정상(30m)	2	A1(원형2)	
48	상동동Ⅲ		구릉사면(30m)	1(0)	·	
49	전주	송천동	B지구	구릉정상-능선(26m)	1	A1(방형1)
50		송천동2가		구릉능선(29-33m)	16(13)	C1(원형2·방형1), D1(원형2) D2(원형1), 기타(7)
51		오송리		구릉정상(35-36m)	6	A1(방형5), 기타(1)
52		송천동 97-20		구릉사면(37-38m)	5	A1(원형2), D2(원형1), 기타(2)
53		필천리	북내C-1(외)	구릉정상(32.3m)	4	A1(원형1·방형2), D1(방형1)
54		오산리	북내A	구릉사면(36-37m)	4	A1(원형3·방형1)
			북내C-1(내)	구릉정상(30-32.1m)	1	기타(1)
			화정A	구릉정상-사면(40m내외)	13(12)	A1(원형10), C1(원형1), A2(원형1)
			오매A-1	구릉정상(40m내외)	4	A1(원형2), C1(원형1), D1(원형1)
			오매A-2	구릉정상-사면(38-40m)	7	A1(원형6), C1(원형1)
			오매A-3	구릉정상-사면(36-38m)	17(15)	A1(원형10), C1(원형3), D2(원형2)
55		동산동	나·마지구 저습지 (호문연) Ⅰ·Ⅱ·Ⅲ (전북연)	충적대지(13-14m)	70(67)	A1(원형16·방형20), B1(원형1·방형1), C1(원형8·방형4), D1(원형4·방형3), A2(원형5), C2(원형1), D2(원형4)
56		반용리	Ⅰ 구역	구릉사면(36m 내외)	2(1)	A1(원형1)
Ⅱ 구역			1		A1(원형1)	
57		장동Ⅱ		구릉정상-능선(24-25m)	3	D1(방형1), E1(방형1), 기타(1)
58		만성동 · 여의동	원만성C	구릉능선-사면(34-36m)	6	A1(원형3), C1(원형1), A2(원형1), C2(원형1)
			만성동B	구릉사면(38m)	1(0)	·
			원만성A	구릉정상-사면(40-43m)	6(5)	C1(원형2), A2(방형1)
			만성동 원만성1-1	구릉능선-사면(39-40m)	5	A1(원형1), A2(원형2), B1(원형1), 기타(1)
			만성동 원만성1-2	구릉정상(39.4m)	5	A1(원형5)
			만성동 원만성1-3	능선사면(41-42m)	3(2)	A1(원형1), A2(원형1)
	만성동 원만성1-4		구릉능선(43.8m)	1	A1(원형1)	

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해발고도)	주거 수	주거 형태 ³⁾
59		만성동 · 여의동	여의동1	구릉정상(33-34m)	7	A1(원형3), C1(원형2), A2(원형1), B2원형1)
			여의동2-2	능선사면(34-40m)	3	C1(원형1), C2(원형1), 기타(1)
			여의동2-3	구릉사면(33-34m)	3(2)	A1(원형1), C1(원형1)
60		만성동 · 여의동	여의동 용정1	능선(33.8m)	1	기타(1)
61		여의동		구릉사면(42m)	1	D2(원형1)
62		마전	Ⅲ구역	구릉정상(42m)	11	A1(원형9), B1(원형1), A2(원형1)
63		척동	I 구역	구릉정상(43m)	1	A1(원형1)
			Ⅱ 구역	구릉정상-사면(35m내외)	2	A1(원형1), 기타(1)
64		봉곡	Ⅱ 구역	구릉정상(49-50m)	3	A1(원형2), C1(원형1)
65		효자4	I 지구	구릉정상-능선(48-51m)	12	A1(원형7), C1(원형1), D2(원형2)
			Ⅱ 지구	구릉사면(50m)	2	A1(원형1), C1(원형1)
			Ⅲ지구	구릉정상-능선(54-55m)	4	A1(원형1), A2(원형2), D2(원형1)
66		효자5	B구역	구릉말단(46-48m)	14	A1(원형1), E1(원형1), A2(원형2), C2(원형1), D2(원형6), 기타(3)
67		효자복합	신주 I	구릉정상(46-47m)	6	A1(원형2,방형1), A2(원형2), B1(원형1)
			함대 I	구릉사면(59.3m)	3(1)	A1(원형1), 기타(1)
			함대Ⅲ	구릉정상-사면(60-64m)	5	A1(원형2), A2(원형2) C2(원형1)
	함대Ⅴ		구릉정상-능선(59-62m)	5	A1(원형4), 기타(1)	
	함대Ⅶ		구릉사면(57.4m)	1(0)	·	
	함대Ⅷ		구릉사면(58.4m)	1	기타(1)	
	함대Ⅸ		구릉사면(47-58m)	4	A1(원형3), A2(원형1)	
68	평화동		구릉능선(62m)	1	A1(원형1)	
69	중인동		구릉정상-사면(61-63m)	4	A1(원형2),C1(원형1), D2(원형1)	
70	대정		구릉정상(57.8m)	1(0)	·	
71	대정Ⅳ		구릉능선(58.5m)	1(1)	C1(원형1)	
72	완주	신평	가	구릉정상-능선(35-40m)	4	A1(방형3), C1(방형1)
73		반교리			2	A1(원형2)
74		옥정	B	구릉능선(30-40m)	4	A1(원형2,방형2)
75		상운리	라	구릉능선-사면(40-45m)	8	A1(원형5), B1(원형1), 기타(2)
76		운교	I 구역	구릉능선-사면(35-40m)	13(12)	A1(원형9), A2(원형1), 기타(1)
77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⁴⁾	2구역A	구릉사면(56-57m)	2	C1(원형1) D1(방형1)
			3구역A	구릉사면(55m)	1	C1(원형1)
			5구역F	구릉사면(47-49m)	3	A1(방형2), C1(원형1)

또한 조·전기 주거와 중기 주거는 입지분포의 양상이 비슷하며, 개별 주거는 능선 상부를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발고도 상으로는 20~40m의 비교적 저평한 구릉에 전체 주거의 약 80%가 입지한다.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는 총 11곳에서 35기가 확인되었다(圖3, 表4). 중기 주거에 비해 취락 형성이 매우 빈약하며, 동시기 분묘유적의 발견에 비해서도 너무나 적은 수이다. 하지만 점토대토기문화기 취락의 부재는 호남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 발굴을 기대하는 것 이외에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김규정 2020:44).

후기 주거는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 분포양상과 마찬가지로 낮은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에 입지하며, 모두 5기 이내의 소형취락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김승욱 2017:49). 또한 조·전기와 중기 주거의 분포양상이 겹치는 정도에 비해 후기 주거와는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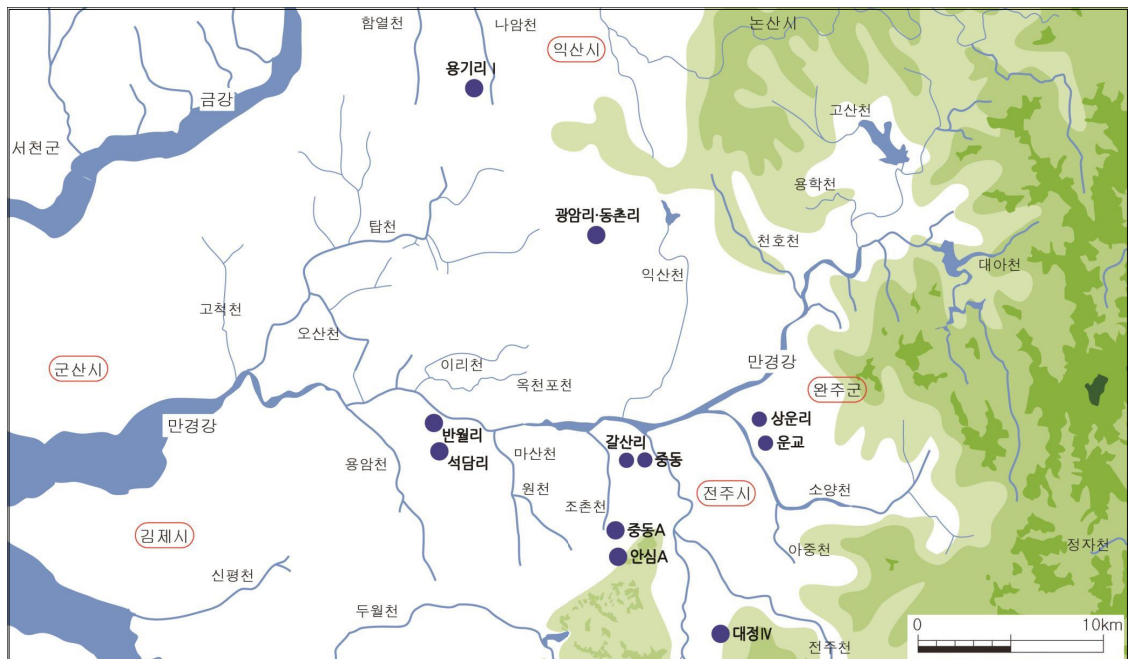


圖 3.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 분포

3) 송국리형주거 분류(이종철 2000; 2016:67)

분류	A	B	C	D	E
①					
②					

4)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유적 발굴조사 완료 결과보고서』.

表 4.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 유적 목록

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	주거 수	평면 형태	내부시설	주요 출토유물
1	익산	용기리 I	구릉정상 (27m)	1	방형	수혈	조합식파수
2		광암리·동촌리 (4지점)	45.1m	1	말각방형	수혈·주혈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우각형파수, 방추차
3	김제	석담리 (B지구)	능선말단	2	(장)방형	노지·주혈	점토대토기, 파수부편, 무문토기편
		석담리 (D지구)	구릉사면	2	(말각)장방형	주혈	무문토기편, 시루편 두형토기(시굴)
4		반월리	능선-사면 (19-24m)	4	(말각)방형	수혈(4호)	파수부용, 석창, 어망추
5	완주	갈산리 (가지구)	구릉사면 (31m)	2	말각방형	노지·수혈	원형점토대토기, 석제품 등
6		상운리 (나지구)	구릉정상 (35m내외)	4	방형	노지 (타원형, 소토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삼각형석촉 등
7		운교	구릉정상 (40m)	1	송국리형 (원형)	타원형수혈 (A2)	적색마연·원형점토대, 두형토기, 뚜껑, 조합식우각형파수, 삼각형석촉
8	전주	안심	구릉사면 (33-34m)	2	원형계	-	심발형토기, 원형점토대·삼각형점토대, 파수부, 송풍관
9		중동 (4지구)	능선-사면 (38m내외)	5	장방형	주혈(5호)	원형점토대·삼각형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두형토기, 토제방추차, 삼각형석촉
10		중동A (다지구)	구릉사면 (33m)	2	방형	-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11		대정Ⅳ	능선-사면 (58m내외)	9	(말각)장방형	수혈·주혈 노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어망추, 석창, 유경식석촉 등

Ⅲ.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1) 조·전기 주거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는 27개소 밖에 되지 않지만,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혼암리유형 문화가 모두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김규정 2011; 정다운 2015; 천선행 2016; 김승욱 2017: 38). 즉, 주거와 유물의 조합에서 전형적인 가락동, 역삼동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문화적 복합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에서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화 유형들의 변화과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천선행 2016, 김승욱 2017). 그 내용은 만경강유역의 전기문화요소는 가락동유형의 토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역삼동유형이 가락동유형과 섞이지 않은 채 단독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주로 금강유역에서 전파되어 가락동유형의 유입이 이루어진 다음 역삼동유형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천선행 2016:87-89, 김승욱 2017:40). 이러한 시각은 각 문화유형 집단 간의 영향과 문화 교류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조·전기 주거자료를 살핌으로서 주거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주거의 기능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주거의 평면형태는 방형 26기, 장방형 30기, 세장방형 3기로 (장)방형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 면적은 2.95m²의 소형부터 162.66m²의 초대형까지 고르게 확인되는데, 이렇듯 면적의 차이가 넓게 확인되는 것은 [圖 4]와 같이 동산동 유적의 영향이 크다. 특징적인 것은 10m²이하의 소형 주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 주거에 인접하여 소형 주거가 분포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圖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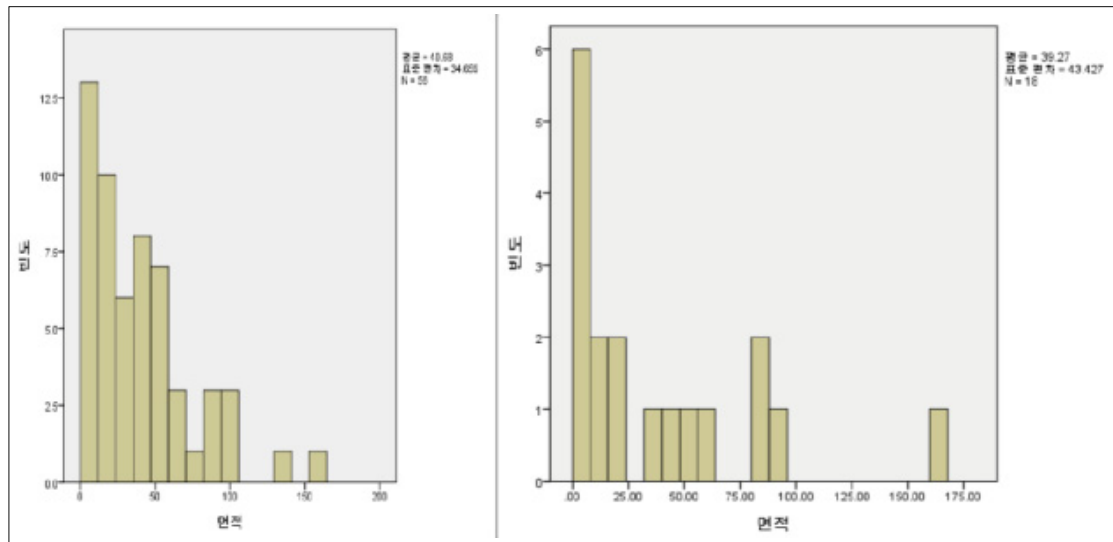


圖 4. 만경강유역(왼쪽) 및 동산동 유적(오른쪽)의 조·전기 주거 면적 분포

조·전기 주거의 내부시설은 노廬, 주혈, 저장수혈 등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속성들은 주거 외부 및 내부의 구조를 추정하고 주거 유형 및 특징 파악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먼저 노는 총 56기 주거에서 확인되었으며, 축조방식에 따라 석상위석식, 위석식, 토광식, 무시설식으로 세분된다. 각 형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토광식이 29기(52%)로 가장 많고, 무시설식 21기(37%), 위석식 5기(9%), 석상위석식 1기(2%)로 집계된다. 석상위석식은 조기의 문화요소 중 하나로 이해되는데, 동산동 39호 주거지에서만 1기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위석식 노는 대체로 중대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무시설식은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 그대로 이용한 방식으로 그 형태가 부정형, 타원형, 방형 등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토광식 노는 한 주거지 내에 2기가 시설되는 경우도 확인되는데, 노 사이의 간격과 위치 등 배치하는 방식에서 유적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유적의 각 집단들은 노를 다루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혈은 12기 주거에서 정형성이 확인되었으며, 구조는 2열 5주공, 2열 3주공, 4주공, 중앙 1열식이 확인되는데(圖 5), 가락동 또는 역삼동유형으로 설정하기에는 극히 소수의 자료가 확인되었다. 또한 비정형 주혈은 주거마다 개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저장수혈의 형태는 말각방형, 원형, 타원형 등 다양하며 규모 역시 각기 차이가 있다. 위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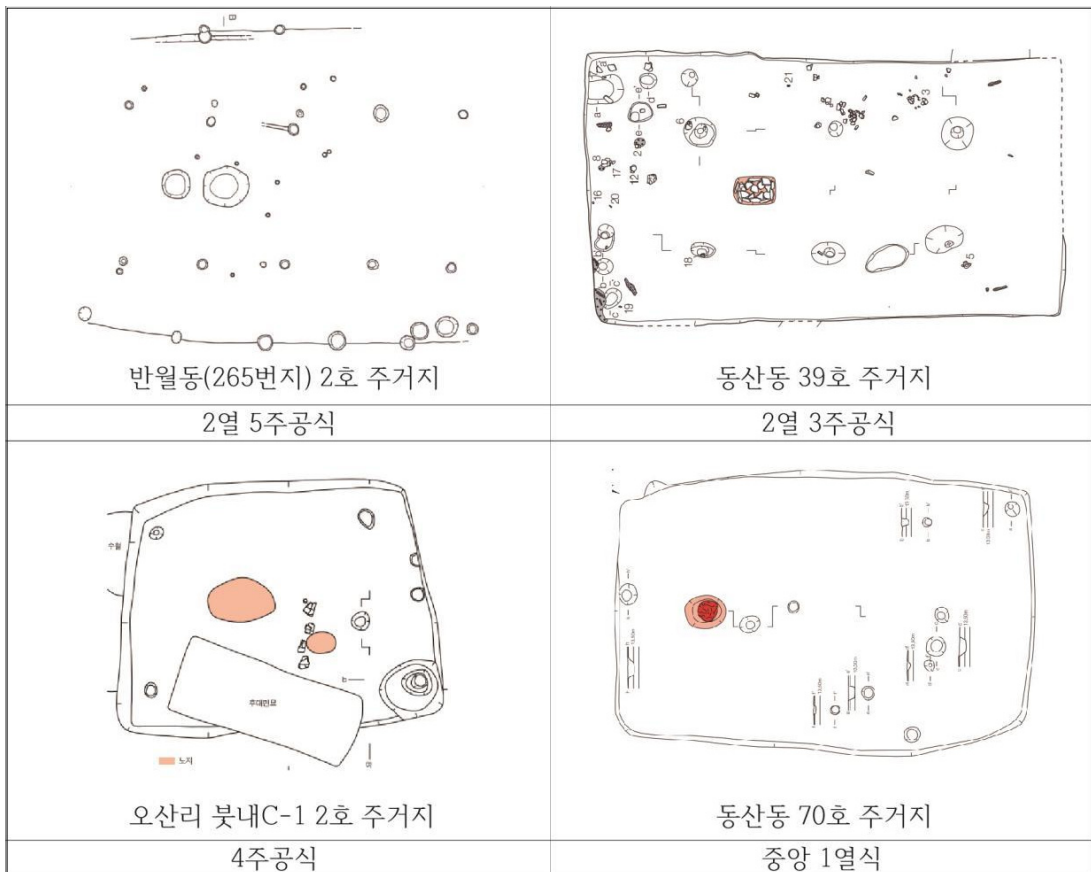


圖 5. 조·전기 주거 주혈 형식(이종철·정다운 2020:319 인용)

반적으로 노 근처나 노와 거리를 두고 벽을 따라 조성된다. 노의 위치가 주로 한쪽 단벽과 가깝게 조성되는 것과는 달리 저장수혈은 주거 내에서 필요에 따라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의 경우 주거지 중복 또는 후대 교란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주거에서 확인되지만 저장수혈은 주거 내에 설치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다. 따라서 저장공의 설치 자체에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만경강유역 조·전기 주거의 출토유물은 주로 실생활용으로 사용되었을 어망추, 방추차와 같은 생업도구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다수의 어망추 출토는 주거의 입지가 만경강의 지류에 중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수심이 얕은 강가에서 어로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토기 양상은 동산동, 영등동, 섬다리 유적에서 돌대문토기가 확인되었으며, 동산동에서는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의 공반양상이, 영등동과 섬다리 유적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질상돌대문토기가 공반된다. 따라서 조기의 문화요소가 전기의 어느 시점까지는 공존하였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데(김승욱 2017:38),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동산동유적의 시기에 대해서는 어망추의 형태를 근거로 돌대문토기집단의 유입시기를 전기 이후로 설정한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천선행 2016:87). 이는 전주 동산동유적의 돌대문토기문화가 주변으로 파급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천선행 2019:

62)과 연관되는데, 필자는 동산동의 장방형 주거가 조기보다는 전기의 문화요소가 더 강한 취락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돌대문토기와 함께 확인되는 전기의 유형은 대부분 가락동유형으로, 시간적으로 전기의 늦은 시기까지 공존하는 역삼동유형보다는 앞선 전기 전반에 위치시킬 수 있다. 다만, 돌대문토기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미사리유형의 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장동Ⅱ, 성곡, 효자4, 만성동·여의동, 오산리 유적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가 확인되어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가락동유형의 전통이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의 성격까지 살펴본다면 완벽히 가락동유형으로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조·전기 유적 중 장동Ⅱ유적과 용기리 I, 구암리유적에서 구순각목+공열+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가 확인되어 혼암리유형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만경강유역의 조·전기 주거는 현재까지도 자료의 분석에 있어 주거의 형태 및 유물상으로 문화유형을 구분하려고 했을 때(表 2), 적어도 현재까지 만경강유역에 한정해서는 결국 어떠한 유형이든 입지, 주거형태, 내부시설, 출토유물 등 명확히 들어맞는 유형설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이미 섞여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각 유형들이 동시 공존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전기 취락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산동 취락은 조·전기단계의 유일한 대규모 취락으로서 의미가 있다. 타 유적들에 비해 대규모이지만, 전기 단계에서는 분묘 또는 생산구역을 분리하는 등의 영역화나 위계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취락의 분포에서 중기의 광장으로 추정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는 것이 눈에 띈다(圖 6). 이러한 주거의 분포는 조·전기 취락에도 공지의 활용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산동 취락에서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10m²이하의 소형주거의 분포이다. 소형주거는 총 10기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72·73·74·75·77호 주거는 가장 큰 주거인 1-1호 및 1-2호 주거를 중심으로 감싸듯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56호와 59호의 주변에도 소형의 주거가 배치되어 있다. 동산동유적의 보고자는 이 소형 주거지의 기능에 대해 1~2인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으며, 내부에 노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주거로 분류하였고, 일반적인 주거가 아닌 의례공간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3권:8). 소형주거의 기능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대형주거와 소형 주거에서 확인된 노의 형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소형주거에서는 토광식 노와 무시설식 노만 확인되어 주거 규모에 따라 노지 선택을 달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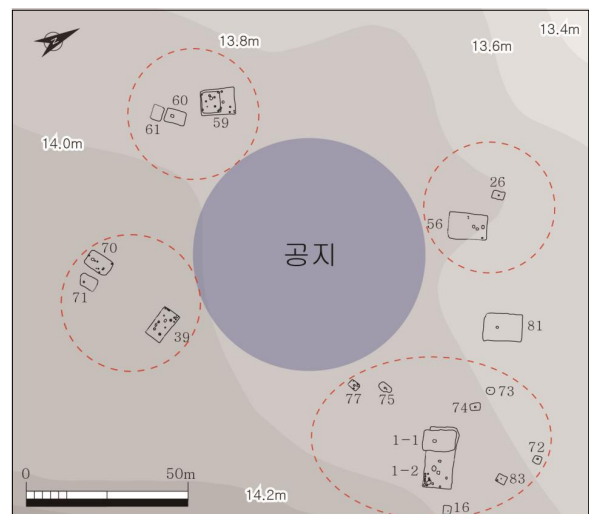


圖 6. 동산동 조·전기 주거 배치 양상
(김승욱 2017:38 필자 재편집)

외적으로 56호 주거지는 중형이며 토광식 노만 2기가 확인되었으나, 중기의 주거들이 그 위로 중복되고 있어 노지가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른 유적의 사례로는 섬다리유적의 1호(소형)와 2호(중형)가 서로 인접하여 확인되었다. 2호에서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었고, 1호 주거는 내부 중앙에서 무시설식노지와 무문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전기 주거 구성을 파악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료들이지만, 동산동유적을 중심으로 10m² 이하 소형 주거의 기능에 대해 ① 대형주거의 부속시설(취사 또는 작업공간) ② 소수인원이 거주했던 주거공간 ③ 의례 공간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김제 수록리에서도 주거의 기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자료가 확인되었다(圖 7). 수록리 1호 주거는 구릉정상부에 입지하며, 주변으로 송국리형주거 9기가 조성되었다. 장축 4.1m, 단축 2.1m의 장방형의 초대형으로, 내부 중앙에 단시설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시설은 주거 조성시 풍화암반층을 의도적으로 남기고 다듬어 조성하였다. 유적의 보고자는 주거의 기능에 대해 단시설 이외의 다른 내부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취락의 제의 공간 또는 공동 집회시설로 추정하였다(군산대학교박물관 2014:170). 하지만 출토유물의 구성에서 주변의 송국리형주거와 차이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1호 주거에서는 이중구연거치문토기, 반월형석도, 미완성석기, 마연도구, 방추차 등이 확인되었고, 주변의 송국리형주거에서는 삼각형석도, 유경식석축 등이 다수 출토되고 미완성석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토유물과 내부시설을 통해 수록리 1호 주거의 단시설은 도구 제작 등 작업 공간 등으로 사용된 전기의 다용도 공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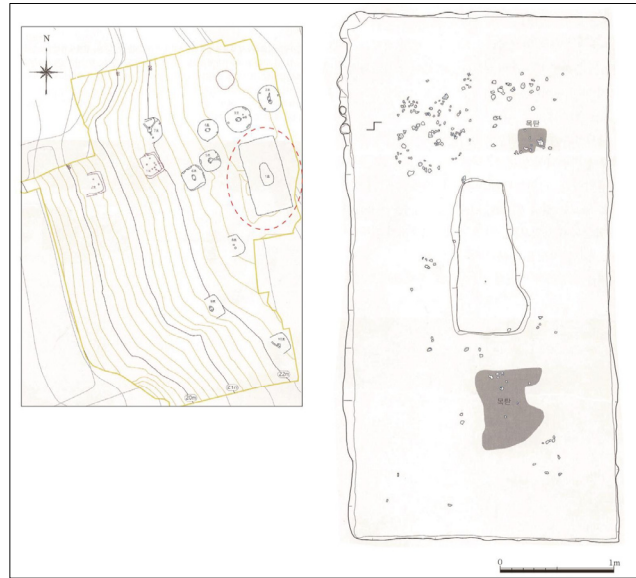


圖 7. 김제 수록리 1호 주거
(군산대학교박물관 2014:74 필자 재편집)

완주 구암리유적은 만경강유역에서 유일하게 해발고도 70m이상의 산지구릉에 위치하며, 환호가 확인되어 이 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특수한 기능에 대한 예시로 항상 언급되는 유적이다. 환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주변지역의 취락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천선행 2019:62). 주거는 총 10기가 확인되었는데 중복된 주거가 확인되어 유적의 시간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군산대학교박물관 2014:166), 출토유물을 통해 중복 주거인 4호와 4-1호 간의 시간차를 두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천선행 2016:75). 3호, 4호, 4-1호, 6호에서 공통적으로 돌기형 꼭지가 달린 발형토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圖 8). 따라서 환호유구를 중심으로 배치된 10기의 주거는 단절적이지 않게 조성 및 영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기의 주거 집단이 사용한 분묘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전기 분묘

의 편년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데, 직립구연호 옹관묘에 대한 편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만경강유역에서 논의 가능한 자료는 동산동, 읍촌리, 운교유적이며, 주거와의 공반 관계에서 송국리형 주거와 함께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만경강 일대의 자료가 적고, 직립구연의 요소가 전기 주거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전기의 옹관묘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 자료만을 토대로 옹관묘의 편년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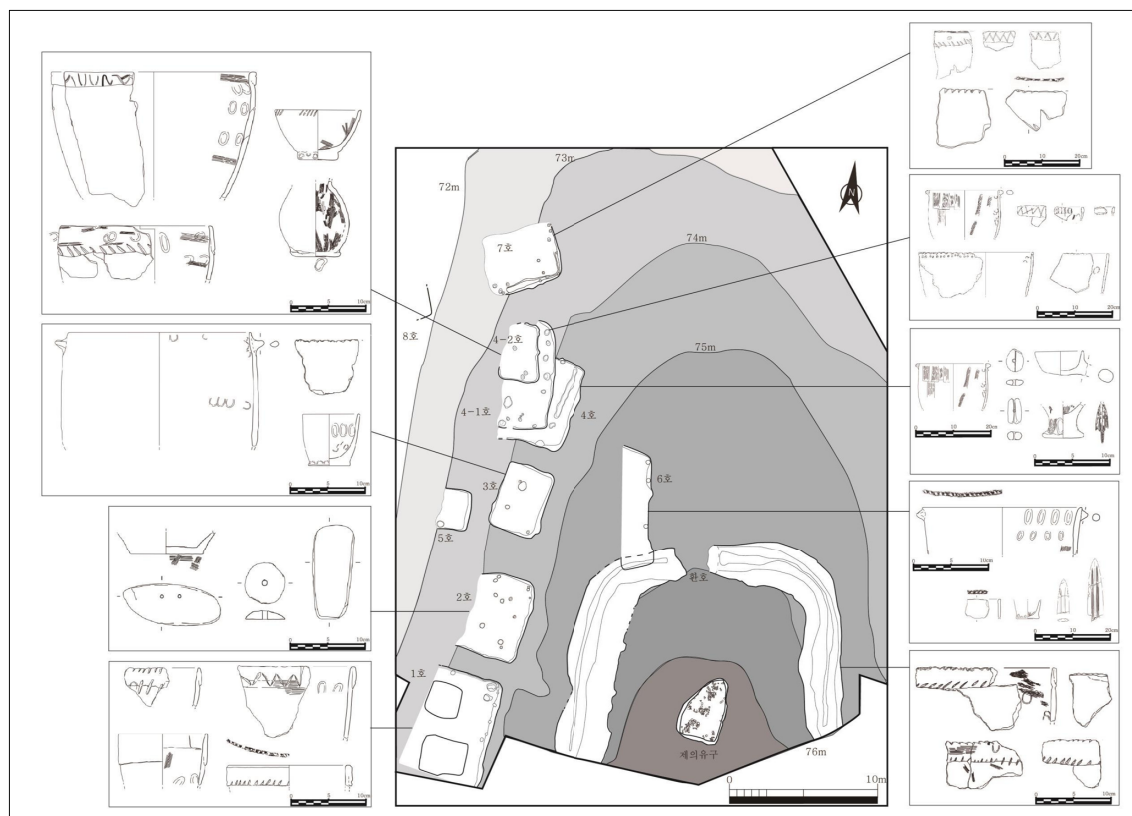


圖 8. 완주 구암리유적 주거 분포 및 주요 출토유물(김승욱 2017:42 필자 재편집)

2) 중기 주거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유적은 77개소에서 510동이 확인되었으며, 원형의 평면형태 내부에 타원형수혈이 조성된 송국리형 주거로 대표된다. 만경강의 상류와 중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몇몇의 대규모 취락을 제외하면 전기와 마찬가지로 10기 이하의 소규모이지만, 주거의 밀집도가 매우 높다. 또한 조·전기 주거 분포지역에 연속적으로 중기 주거가 입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圖 1·2).

중기 주거의 평면형태는 휴암리형(방형)과 송국리형(원형)으로 대별되는데, 이들의 선행관계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만경강유역의 경우 방형과 원형의 주거들이 공반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表 3), 주거 간 중복관계에서도 방형→원형의 일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확

인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적분포양상을 기준으로 취락지를 구분하여 주거 평면형태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만경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의 평면형태는 원형 330기, 방형 92기로 원형이 방형보다 3배 이상 많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부 타원형수혈의 형태는 내주공(A형)이 형태파악 가능한 462기 중 267기(58%)에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원형은 204기, 방형은 63기이다. 이 수치는 최근 보고된 유적들의 자료가 추가되었음에도 대체로 금강유역권 송국리형 주거 특징인 내주공식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원형계와 방형계의 비율이 3:1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종철 2015:78)과 동일한 양상이다.

表 5. 중기 취락지 구분 및 주요 유적

취락지 주요 유적	I 취락지 (익산)	II 취락지 (전주·완주)	III 취락지 (군산·김제)
유적명	부송동, 영등동, 무형리·어량리	동산동, 필천리·오산리, 만성동·여의동	부거리, 수록리 반용리·부용리

취락지 구분을 통해 지역별로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금강유역권과 가장 인접한 I 취락지(익산)의 경우 내주공식 원형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내주공식 방형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만경강유역 전체의 양상과 동일하다.

II 취락지는 동산동과 만성동·여의동, 필천리·오산리 등 유적이 가장 밀집된 취락지로서, 역시 내주공식(A형) 원형 주거가 45기로 가장 많지만, 내주공식 방형 주거 또한 22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방형주거는 A형 이외에도 C·D·E형이 소수 축조되었다. 이렇듯 II 취락지에서 방형 주거가 다수 확인되는 것은 동산동유적의 주거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동산동 취락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양상으로 해석된다(이종철·정다운 2020:303). 또한 동산동 67호(60.7㎡)는 6주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송국리형 주거이고, 동산동 68호(59.5㎡)는 4주형이면서 두 번째로 큰 송국리형 주거에 해당한다(이종철 2020:15). 이는 동산동 주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곧 금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에서 확인되는 형태 상 다변성의 특징(이종철 2015:79)이 만경강유역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원형 주거로 구성된 취락도 확인되는데, 효자동복합유적(25기), 만성동·여의동(36기), 오산리(46기), 효자4(18기)유적이 해당한다. 동산동과 같이 주거 형태가 다양하게 분화된 취락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주변으로는 비교적 형태가 통일된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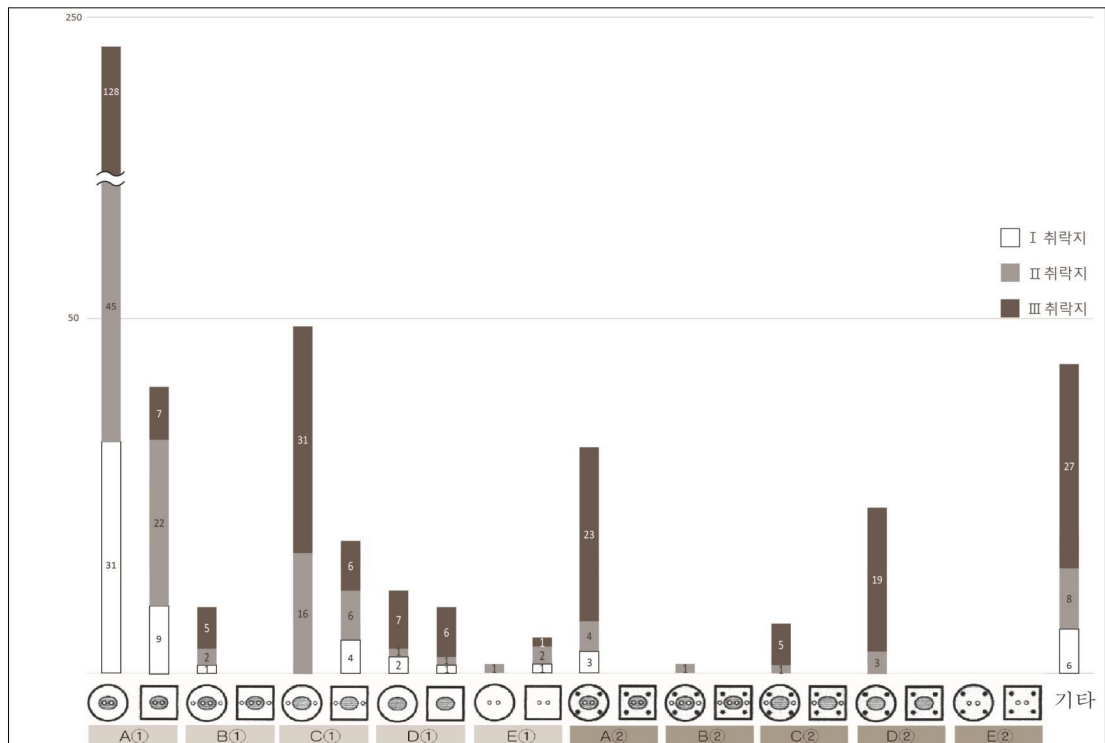


圖 9. 취락지별 송국리형 주거 형태분류

Ⅲ취락지는 I·Ⅱ취락지에 비해 유적 수 및 주거 수가 현저히 적고, 주거 밀집도가 낮다. 다만, 반응리·부용리와 부거리유적에서 각 11기와 13기의 송국리형 주거가 확인되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반응리·부용리의 주거는 2개의 군집으로 구분되며, 원형의 내주공 및 외주공식 원형 주거가 다수 확인되었다. 송국리형 주거의 일반적 입지양상과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는데, 각 군집의 원형 주거들 사이에 방형 주거(A형·D형)가 1기씩 축조되어 있어 동시기를 영위한 주거로 판단된다. 또한 부거리유적은 2개 군집(I-2·Ⅱ)이 확인되었는데, 13기 중 11기가 원형의 내주공식으로 동일하고, 그 면적 또한 비슷한 수준이어서 당시 주거 형태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수록리에서는 방형 주거가 8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거 내부 타원형 수혈의 장축방향이 원형 주거는 동-서방향으로, 방형 주거는 남-북방향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주거 형태별 축조양상이 달랐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데, 두 유형의 주거 출토 유물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수록리를 제외하면 Ⅲ취락지 역시 원형의 내주공식(A형)의 주거가 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 평면형태가 반영하는 시간성에 대해서 중복 확인된 주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圖 9). 만경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의 형태 변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방형에서 원형으로의 변화가 상정되기도 하는데(천선행 2019:70), 대표적인 근거로 동산동에서 방형계 주거를 파괴하고 원형계 주거가 축조된 사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주거의 절대연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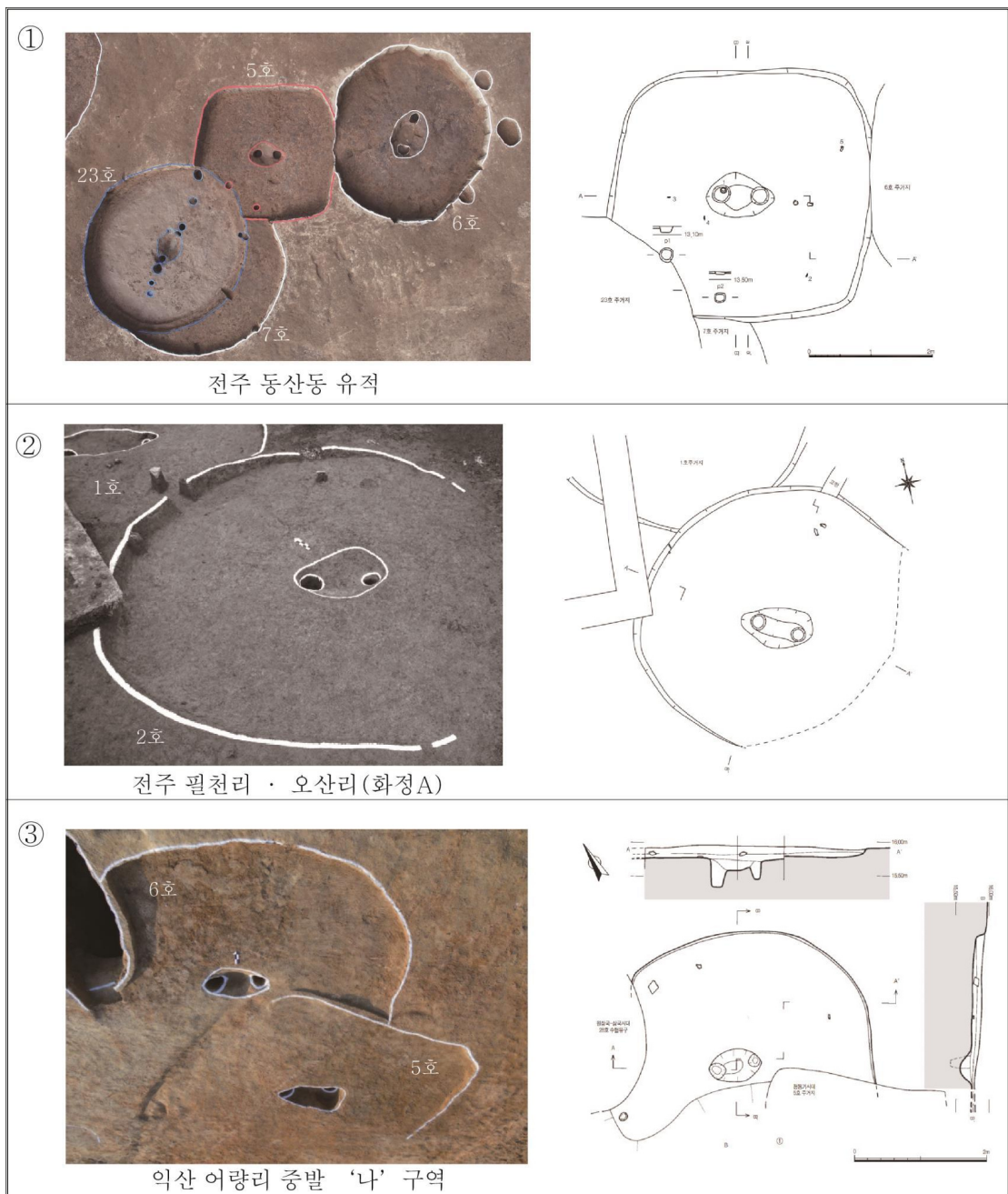


圖 10. 중기 주거의 중복양상

기 때문에(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3권:51) 방형→원형을 일반적인 변화로 상정하기는 어렵다(김승옥 2017:44). 또한 형태 변화에 대해 원형 주거를 파괴하고 방형 주거가 설치되는 사례(익산 원수리, 와리 정동)를 통해 평면 형태를 고고학적 시간차로 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천선행 2019:71).

중기 주거의 중복 관계는 총 3가지로 확인되는데, ①방형 주거를 파괴하고 원형 주거가 설치되는 사례, ②원형 주거를 파괴하고 원형 주거가 설치되는 사례, ③원형주거를 파괴하고 방형 주거가 설치되는 사례이다(圖 10). 또한 앞서 살펴본 듯, 확실히 원형계의 주거가 우세하지만 같은 유적에서 원형계와 방형계가 공반 되는 경우가 상당 수 확인된다(表 3). 이러한 중복관계의 다변성은 결국 만경강유역 중기 주거의 특징으로서 방형 및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가 공존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Ⅱ취락지의 양상처럼 대체로 중기 후반에 이르면 원형계의 송국리형 취락이 만경강유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행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김승옥2017:44; 천선행 2019:70).

한편, 전주 척동유적(Ⅱ-1호)에서 부뚜막 시설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온전한 송국리형 주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구분하였는데[表 3], 2호 주거(송국리유형)와 인접하고 있는 점과 방사성 탄소연대 값을 통해 중기 주거로 이해할 수 있다(圖 11). 최근 광주 평동유적에서도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숯받침으로 사용한 부뚜막이 확인되어 원삼국시대 이전에 부뚜막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2:46). 이에 더하여 척동유적은 송국리형문화단계에 부뚜막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송국리형주거에서 노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혁신적인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이종철·정다운 2020:331). 따라서 이미 보고된 유적에 대해서도 만경강유역 중기 주거에서 감지되는 다양한 변화양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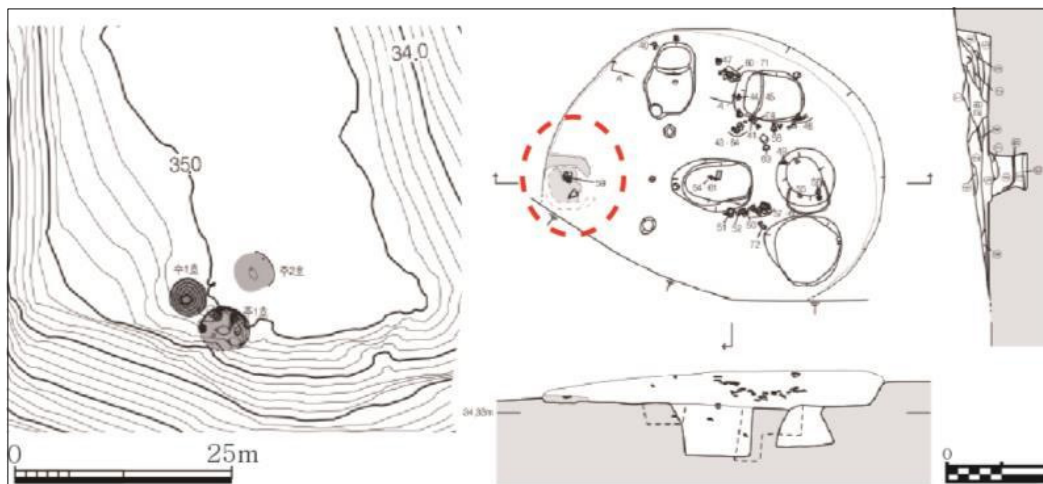


圖 11. 척동Ⅱ-1호 주거 부뚜막 시설(호남문화재연구원 2008:293-4, 필자 재편집)

3) 후기 주거

청동기시대 후기의 설정과 그 구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별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차의 쟁점사항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표지라 할 수 있는 점토대토기문화(수석리유형)의 시작 연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한국식(세형)동검문화와의 관계, 철기문화의 개시 연대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김승옥 2016:42).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는 주거의 분포를 확인하

고, 대표유적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 자료는 분묘 자료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나며, 많은 연구자들은 대규모 분묘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주거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되는데(表6·圖10), ①송국리형 주거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는 유형(I 유형)과 ②방형계 또는 원형계 주거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는 유형(II 유형), ③(말각)장방형계 주거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형(III 유형)이다. 이들 주거의 출토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송국리식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삼각형석축 등이 공반 된다.

表 6.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의 유형

구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대표 주거	방형계 · 원형계	송국리형 주거	(말각)장방형계
표지 유물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 삼각형석축	원형점토대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 삼각형석축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무문토기, 석검, 석창, 유경식석축
대표 유적	완주 상운리, 전주 중동 · 중동A	완주 윤교 8호	전주 대정IV

I 유형은 완주 상운리·갈산리, 전주 중동·중동A 등 완주와 전주, 김제, 익산에 분포한다. 모두 5기 이하의 소규모 주거이며, 평면 형태는 방형계와 원형계가 확인된다. 원형계는 안심유적의 사례가 유일한데, 중복 주거로 반파된 채로 확인되어 내부시설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중동유적에서는 방형 주거 5기가 확인되었으며 능선 정상부와 사면부에 입지한다. 그 중 1호와 5호는 각각 동쪽과 남쪽에 단독 분포하며, 그 규모가 36.58㎡, 32.33㎡으로 다른 주거들에 비해 대형인 것이 주목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1호와 5호 사이에 서로 인접하여 입지하는 2·3·4호는 모두 10㎡이하의 소형이다. 또한 2·3·4호 주거 주변으로는 소형의 수혈 4기가 분포하고 있는데, 주거 및 수혈에서 출토되는 유물 양상은 비슷하여 동일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 유형 주거의 내부시설로는 주혈 및 수혈, 그리고 노가 확인되었는데, 송국리형주거와는 달리 모든 부분에서 정형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갈산리(2호)와 상운리유적(나지구 2호)의 주거 내부중앙에 시설된 원형수혈은 동일한 양상이다. 또한 노 시설이 갈산리(1호)와 상운리(나지구 3호)에서 확인되었는데, 송국리형주거의 타원형 수혈 자리에 시설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송국리형주거지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송국리형주거지의 소멸 과정과 점토대토기의 연관성을 보여준다(한수영 2020:356).



圖 12. 유형별 후기 주거 및 출토유물

Ⅱ유형은 완주 운교 8호 주거가 유일한데⁵⁾, 구릉 정상부에 자리하고 13기가 밀집 분포하는 주거군의 중심에 입지하며 가장 큰 규모이다. 인접한 다른 주거들과 중복되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열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송국리형문화와의 연속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또한 만성동·여의동 유적은 순수 송국리형 취락으로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탄소연대의 중심연대가 기원전 5~4세기를 전후하는 일부 취락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송국리형 취락이 늦은 시기까지 이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한수영 2020:342). 즉, 송국리형주거가 청동기시대 후기까지 지속되면서 점토대토기와 복합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Ⅲ유형의 대정Ⅳ유적은 주거 형태 및 내부 시설 등이 여타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와 상이한 점이 주목된다. 총 9기가 확인되었으며,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일련의 취락구조를 이루는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9:125). 주거는 모두 말각(장)방형으로 구분되며, 가장 대형인 6호(49.3㎡)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입지하고 있다. 또한 노지는 내부에 1개 또는 2개가 중앙에 가깝게 조성되었다. 주거의 평면형태와 노지양상이 수석리유형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 살펴본 주거 이외의 생활유구로는 수혈과 구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의 양상은 원형점토대토기, 우각형파수부호, 두형토기 등 주거 출토품 구성과 동일하다. 대표적으로 정문동(나지구)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우각형파수부호가 공반된 구 6기가 확인되었으며, 중동A(가지구)유적 수혈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파수부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와 구, 수혈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까지는 주거 자료보다 훨씬 많은 구와 수혈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동유적(4지구)과 안심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 되어 후기 주거에서 시간적 변화양상이 감지된다. 이러한 현상은 수혈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완주 갈산리, 중동·중동A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 한다(김규정 2020:50).

결론적으로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 집단은 중기에 비해 소규모화 되는 변화를 겪으며, 유물 구성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송국리형집단과 배타적인 관계보다는 접촉과 교류를 통해 연속적으로 문화를 형성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기와 후기 두 문화의 접촉에서 비롯된 흔적을 통해 송국리형문화가 점토대토기문화 단계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종철 2015:80).

5) 대정Ⅳ 유적 1호 주거(송국리유형) 출토 토기 중 점토띠 부착흔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호남문화재연구원 2019),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불포함으로 추후 검토가 요구되므로 제외하였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살펴본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특징은 다양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쟁점은 각 문화 간 교류 양상의 확인이다.

먼저 조·전기는 소규모의 집단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가운데, 가락동·역삼동·훈암리유형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동산동유적을 비롯한 소수의 유적에서 주거 기능 분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기 주거는 전기에 비해 취락이 군집을 이루는 등 거점 취락이 등장하며, 전기 주거가 입지했던 곳에 중기 주거가 연속적으로 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주거 형태에 반영된 시간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같이 결국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로 귀결되지만, 방형(훈암리형)과 원형(송국리형)이 공존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후기 주거는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는 방형계의 수석리유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윤교 8호의 송국리형주거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점과 최근 평화동 대정IV유적의 수석리유형과는 차이가 있는 주거가 다수 확인되었다. 앞으로 이 유적에 대한 논의는 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의 특성 또한 문화접촉에 의한 다변화, 다양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지역에서 그간 이루어진 연구 중 편년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의 특징을 문화 다양성으로 꼽았음에도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그 교류양상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연구자들의 성과에서 다양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논문

- 김규정, 2020,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과 그 변화」, 湖南考古學報 第65輯, PP.38-75.
-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韓國考古學報 第60輯, pp4-37.
- 김승옥, 2016,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韓國考古學報 第99輯, pp.40~77.
- 김승옥, 2017, 「만경강 일대 선사문화의 전개와 성격 - 전북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第55號 PP.32-59.
- 김재윤, 2004,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韓國上古史學報 第46號, pp.31-70.
- 이종철, 2015, 「松菊里型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철, 2020, 「청동기~철기시대 전북지역의 정치세력」, 전북사학 58호, PP.5-43.
- 이종철·정다운, 2020, 「전주 황방산 일원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 현황과 특징」,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 유적 일원 유적 분포 현황 조사 보고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2.
- 한수영, 2020, 「전주 황방산 일원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분포 현황과 특징」,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 유적 일원 유적 분포 현황 조사 보고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2.
- 전선행, 2016, 「湖南地域 前期無文土器文化의 實體와 展開」, 湖西考古學 35, pp.65-93.
- 전선행, 2019,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취락 특징과 분포양상」, 湖西考古學 44, pp55-81.

- 주요 보고서

-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완주 구암리유적』, 군산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52.
- _____, 2014, 『김제 수록리유적』, 군산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56.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김제 반월리·부용리유적』, 調査研究報告書 第134冊.
- 전북대학교박물관, 2010, 『上雲里Ⅲ -生活遺蹟 및 墳墓-綜合考察』, 全北大學校博物館 叢書 52.
- 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全州 長洞Ⅱ遺蹟』, 遺蹟調查報告書 第30冊.
- _____, 2014, 『김제 부거리·하정리 유적』, 遺蹟調查報告書 第78冊.
- _____, 2015, 『全州 東山洞 청동기시대 聚落 1·2·3권』, 遺蹟調查報告書 第80冊.
- _____, 2017, 『全州 筆川里·五山里遺蹟』, 遺蹟調查報告書 第89冊.
- _____, 2018, 『全州 萬成洞·如意洞遺蹟』, 遺蹟調查報告書 第95冊.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全州 鳳谷·여매·尺洞遺蹟』, 學術調查叢書 第106冊.
- _____, 2013, 『全州 中洞遺蹟』, 學術調查叢書 第160冊.
- _____, 2013, 『完州 雲橋遺蹟』, 學術調查叢書 第173冊.
- _____, 2015, 『全州 東山洞遺蹟Ⅰ』, 學術調查叢書 第186冊.
- _____, 2019, 『全州 平和洞 大亭Ⅳ遺蹟』, 學術調查叢書 第217冊.

- 단행본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2016, 『전북의 하천과 주변문화』.